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0일 목요일 음 6월 16일 (8월)

기상정보



25-30℃
파고 1.0-3.5m
25-31℃
파고 1.0-3.5m
25-29℃
파고 1.0-3.5m
26-30℃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29-31℃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풍량이 세계 일겠으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20%
30%	성 산	20%
10%	고 산	1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많음 25/31℃

모레 ☀ 구름많음 24/30℃

월드뉴스

트럼프 “일론 머스크 신당 걱정 안돼”

머스크, 트럼프 공격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행보를 두고 자신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 나온 직후에는 “완전히 탈선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일 자신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악영향을



각료회의서 발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줄 수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이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다음날 “오늘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고 선언했다.

이후 그는 OBBA 법안이 야기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문제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역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들을 잇달아 올렸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강연실
제주연구원 자치문화연구부 부연구위원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제주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 지출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착한 소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전략적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영학의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이론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서도 사회문제를

지역화폐와 착한소비, 제주경제 순환의 열쇠

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개념을 지역경제에 적용하면, 소비자는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회복하며, 지역 전체적으로 자금의 순환 효과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탐나는 전’은 이런 CSV 전략을 실천하는 좋은 예이다. 최근에는 최대 15% 인센티브와 공공 배달앱 ‘떡깨비’와의 연계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도민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순환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지역승수(local multiplier)’이다. 예를 들어, 한 마을의 민박집에서 받은 숙박비가 전통시장에서 이용되고 다시 지역 상점이나 음식점으로 이어진다면,

같은 돈이 지역 안에서 여러 번 돌며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반면, 대형마트나 외부 자본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지역에 돌아오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지역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순환구조가 지역의 자생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본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지원금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경제 순환 장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투입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공공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광과 유통 중심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제주경제에서 지역 내 소비 순환은 더욱 절실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제주형 지역화폐 정책은 예산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과 더

불어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가맹점에 대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맹점의 지역 기여도를 고려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 흐름을 분석해 업종 간 편중을 조정하는 등의 보다 정교한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착한 소비는 도민의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제주 경제를 살리는 현실적인 방법이자 현명한 선택이다.

도민의 소비가 지역 상인의 매출로 다시 또 다른 지역 소비로 이어질 때, 제주 경제는 자립적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정책은 행정의 만들지만 그 효과는 결국 도민의 손에 달려 있다. 착한 소비는 지금,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다.

열린마당

저출산,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담대한 도전

외국인 범죄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재호
연구보건복지협회제주지회 본부장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 기준)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는 더 이상 ‘위기’를 넘어 ‘재앙’이라는 표현마저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첫째, 성 평등에 기반한 진정한 돌봄의 공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하고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 전제다.

둘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회복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넘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고,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비혼 출산, 입양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사회적 지원과 차별 없는 시선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미래를 꿈꿀 수 있으며,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공감하고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문화적 관습,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담대한 도전이 지금 시작돼야 한다.



이혁재
제주해안경비단 2경비대 경장

제주에는 현재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근로자들이 제주를 찾고 머무르며, 외국인은 이웃이자 제주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됐다.

그러나 외국인의 범죄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때로는 외국인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감과 편견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제주 경찰청은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국어 홍보물을 배포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노력하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할 내 주요 관광지인 산방산, 표선해수욕장, 용머리해안 등에서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며 순찰을 하는 등 범죄 예방 및 체감안전도 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한다. 일부의 잘못이 외국인 전체의 잘못이 될 수 없고,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제주에서는 이해와 관심이야말로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다. 나 스스로 먼저 인식을 변화시키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해안경비단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순찰 등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서로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평화의 섬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감귤 신상품 분양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리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라향

온주

유라조생, 하례조생, 오히라베니(궁천번이자), 궁천, 고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로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사리향, 우리향, 달코미

2026년 사전예약
주문 받습니다

하례조생 3~5년생
천혜향 3년생

그 외 모든품종 보유

서귀종묘

010-6677-5753
064-733-7005